

4·3평화기념관에 울려 퍼진 '하나의 울림'

어제 하버드대 아카펠라·표선고 학생 4·3추모곡 공연 "역사적 장소서 의미"... 두달간 준비한 미술작품 전시

"애기동백 꽃 지면 겨울이 가고 / 봄이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 울긋불긋 단풍에 가을이 가면 / 애기동백 꽃 피는 겨울이 온다."

6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4·3 추모곡인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아카펠라 그룹 크로코딜로스(CROCODILES)와 제주 표선고등학교 중창단의 하모니를 통해서다.

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갤러리 누보가 기획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력해 마련한 이날 공연은 4·3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주의 역사가 서려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가장 의미있는 공연을 하고 싶다"는 크로코딜로스의 뜻에 따라 이뤄진 무대다.

1964년 창단된 크로코딜로스는 12명의 하버드 재학생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으로, 하버드대에서 가장 오래된 중창단이다. 팝, 재즈, 스윙, 발라드, 록 등 다양한 레퍼토리라 재치있는 곡 해석으로 매년 20개국 이상 순회공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백악관과 카네기홀 등 무대

에도 올랐다.

이날 공연에서는 12명의 미국 하버드대 재학생들과 9명의 제주 고등학생들이 한 음절 한 음절 함께 호흡을 맞추며 4·3의 아픔을 노래로 어루만졌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민희의 바이올린 연주가 더해지며 그 울림은 더 깊어졌다. 또 4·3추모곡 사이에 '아리랑'을 편곡해 하버드대 아카펠라의 목직합 음색으로 전해지며 또다른 울림을 주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크로코딜로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6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아카펠라 그룹 크로코딜로스와 제주 표선고등학교 중창단이 4·3 추모곡인 '애기동백꽃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다.

공연을 한 하버드대 아카펠라 단원인 시릴 리히(Cyril Leahy)는 "제주의 역사적 공간에서 제주도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돼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며 "미래세대인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들게 한 시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과 연계해 표선고 학생들이 4·3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두달 간 준비한 4·3 미술 작품들도 이날 공연장 입구에서 선보였다. 14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4·3을 표현했다. 무명천 할머니의 삶을 모티브로 제작한 '아픔을 꿰매다', 제주 땅에 새겨진 상흔을 표현한 '제주, 레드 아일랜드

(JEJU, RED ISLAND)', 동백꽃으로 4·3희생자들을 비유한 '꽃으로 다시 피어나리', 4·3 생존자들의 깊은 상처를 담아낸 '총성과 박수소리' 등 회화부터 설치작업까지 다양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하버드대 아카펠라 단원들에게 직접 영어로 해설하며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의 의미를 알리고자 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하운 학생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제주에 온 외국인들에게 4·3을 알리는 기회가 돼 매우 뿌듯하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4·3을 알리려고 했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서귀포관악단이 전하는 '3개의 춤·우주의 음악'

10일 제88회 정기연주회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이 이달 10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88회 정기 연주회를 연다.

'3개의 춤 & 우주의 음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색소폰과 색소폰의 듀오 무대와 관악 오케스트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현대 교향곡이 연주된다.

공연은 2025 제4회 제주국제관악 작곡콩쿠르 2위 입상곡인 함경민의

'구명'으로 시작된다. 이 곡은 제주 4·3의 역사를 음악으로 표현한 곡으로, 작곡가가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만든 추모곡이다.

이어 색소폰 백승연 제주도립 유포니움 수석단원과 색소폰 정원강 서울 솔리스트 윈드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이 듀오로 재즈를 기반으로 한 롤란드 센트팔리의 '3개의 춤'을 연주한다.

프랜시스 맥베스의 '선원과 고래', 필립

스파크의 '우주의 음악'이 선사된다.

공연 관람은 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이달 9일 오후 5시까지 서귀포e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예술단 사무국(전화 064-739-0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백승연, 이동호, 정원강

기담미술관 어린이 미술학교

서귀포시 기담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어린이미술학교 '조물조물 미술 창작소'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저학년반 '마인크래프트 세상'과 고학년반 '그림자로 만들어진 세상'으로 구성되며, 이달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7회씩 진행된다.

수강생은 저학년(1~2학년) 15명, 고학년(3~6학년) 15명을 모집한다. 9일 오후 5시까지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hakoh2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영화觀 귀어

사랑과 결합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그저 향기로운 축복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녀석으로 진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형과 이상향의 일치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하모니를 위해 맞춰진 퍼즐들은 때론 너무 딱 끼어 있어 부자연스럽게도 느껴진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져오는 나의 감각을 완전히 신뢰해도 되는 걸까. 누군가에게 빠지는 데 고작 3초면은 짧았지만 제주에 온 외국인들에게 4·3을 알리는 기회가 돼 매우 뿌듯하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4·3을 알리려고 했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영화 '귀어'

투명하고 쓸쓸하다. 유진이 리를 리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는 야헤라는 약초가 가진 성분이 두 사람 사이에 텔레파시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고 밀림으로 향한다.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사랑받는 기분을 얻고 싶어하다. 우리의 지금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날날이.

때로는 사랑이라는 관계와 행위에서 '사랑 받는 기분'이 전부일 때가 있다. 왜 주지 않는가. 왜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대를 향한 낙담과 체념 대신 기꺼이 이 감정의 원시와 원형을 향해 돌진하는 '귀어'는 무수한 사랑 영화들 틈에서도 '귀어'하다. '귀어'는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인 동시에 기묘한, 괴상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익숙한 사랑의 화원이 아니라 후속순의 감정으로 피어난 욕망의 정글에서 '귀어'의 여정이 끝을 맺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귀어'는 '사랑해'라는 고백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한 사랑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리는 유진에게 매혹된 채 끊임없이 접근하지만 명확한 음성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지는 않는다. 대신 눈동자의 떨림과 내뿜는 더운 숨, 집요하게 유진의 육체로 향하는 리의 모든 신체 부위가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반문한다. 3부로 구성된 '귀어'는 매혹에서 시작된 사랑의 원색이 어떻게 변색되는지를 지켜보는 영화다. 영화는 낭만이라는 함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굴을 판다. 그 이유는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나를 찾아 떠나는 설레임!

M 모아투어

NAVER 모아투어 748 2002

기획영업 보증보험 2억원 가입업체

주말 : 010-2949-2002

가고 또가고 [출발일에 따라 요금 상이]

대 만 4일 699,900won부터
제주-타이페이-야류-지후편-서문정-제주

오 사 카 4일 849,900won부터
제주-오사카-청수사-동대사-오사카-제주

백두대간열차/백암온천 3일
출발일 8/15 598,000won
제주-안동-영주-울진-경주-대구-제주

신서거/항주/형띠엔 3일
출발일 7/24,8/14 898,000won
제주-항주-신서거-형띠엔-항주-제주

몸과 마음을 녹이는 온천 여행이라 [NO비자]

북해도/삿포르 4일 1,690,000won

출발일 10/20, 10/26(단 2회) ★ 온천 호텔2박

전세기 제주 ↔ 삿포르

제주[11:00출발]-삿포르-조잔케이-노보리베츠-도야-오타루-제주[18:00도착]

"세계자연유산 무릉도원 황홀경에 빠지다" [NO비자]

장가계/천문산/천자산 5일
출발일 9/3(단1회) 1,098,000won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천문산-무릉원-장사-제주

내몽고/호화허트/고속열차 4일
출발일 7/24,7/31,8/7(3회)
1,490,000won [노출선]
제주-베이징-호화허트-시라무원초원-베이징-제주

라오스/방비엔 5일
출발일 10/8 1,390,000won
제주-비엔티엔-방비엔-제주

신이 허락해준 단 5개월, 민족의 영산 [NO비자]

백두산북파/서파 4일

출발일 7/3,7/10,7/17 1,198,000won

출발일 7/24,7/31,8/7,8/14 1,298,000won

제주-심양-북파-서파-심양-제주

*현재 예약 기준이며 출발일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주시 월랑로62(노형동) / 대표이사 : 문인관
사무실 방문시 건물 뒷편 주차장 이용

*공통포함사항 : 항공료,택스,유가할증료(상품가에 포함),호텔,차량료,식대료,입장료,기사가이드팁(단, 타사패키지는 현지에서 지불합니다.),10명이상출발(15명이상시 인솔자동행), 단 타사 패키지 상행에 따라 달라짐 / VAT 별도 등록번호 제337호
*선택경비 :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하여 그에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포함:개인경비,비자발급비(일부지역),기사가이드팁(일부지역)